

큰바다와 같은 경찰서 민원실

에세이

김명선

광주서부경찰서 방호관



“선생님 밖으로 나가서 마시고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방문증을 이용해서 본관 3층 여청수사팀으로 가세요”

하루에도 수백명의 방문객을 상대로 같은 말을 반복하다보면 오후에는 입에서 단내가 난다.

필자는 경찰관으로 정년퇴임 후 이곳 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방호관으로 근무하면서 제2인생을 살고 있다.

방호관의 임무는 경찰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경찰관들을 외력으로부터 보호하며, 경찰서를 찾는 방문객들이 불편함 없이 방문 목적을 달성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처음 방호관으로 근무할 시 경찰관으로 근무할 때 스트레스받고 그 고생하고 또다시 경찰서에서 근무하냐고 눈초리를 보내는 후배들도 있었다.

물론 방호관 근무를 하면서 하루 수백명의 방문객을 상대하고 이들이 불만없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일이 녹록지 않다. 그러나 이제는 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경험이 많고 노련함이 있어 이곳 서부경찰서에서 2년 넘게 방호관으로 근무하면서도 단 한번도 방문객들과 불협화음 없이 근무하고 있어 많은 후배들도 이제는 지지해주고 있다.

이곳에서 막상 근무해보니 경찰관으로 일선에서 근무할 때는 주취자에게 시달리는 지역경찰들만 항상 고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것도 녹록지 않다.

경찰서 민원실은 불만을 가지고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많다. 왜 나만 적발하고 철수해버리냐는 음주운전자, 교통법규위반 장소가 잘못되었다고 큰소리치는 민원인, 사건처리기간 잘못되었다는 민원인등 경찰에 불만있는 민원인은 일단 민원실에 들어가면서 큰소리부터 친다. 민원실 직원들은 이런 민원인들을 계속 설득하며 자신의 스트레스와 건강을 갇아먹으면서 노력하는 그들을 다시보게 되었다.

경찰서 민원실은 큰바다와 같다. 大海不擇細流(대해불택세류)라는 말처럼 큰바다는 어떤 강물이라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사람의 신체중 가장 게으른 곳이 눈이라고 했던가 경찰서를 찾는 방문객들의 출입이 편리하게 안내문을 여기저기 설치해 놓았지만 안내문을 읽은 방문객은 거의 없다. 외면해 버린지, 못 본것이지 모르겠다.

안내문을 읽으면 쉽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방호관의 안내를 원하고 있어 하루에 수백명을 상대하는 것이 몹은 고되지만 그래도 보람은 있다.

경찰서를 찾는 방문객 대부분은 좋은 일로 오는 사람이 없다.

불안하고 다급하며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다. 방호관은 이런 방문객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분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면 그 아픔과 고통은 훨씬 크다는 것을 잘 알기에 항상 친절하게 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방문객들을 대하고 있다. 어느 방문객은 경찰서내 천원짜리 커피 한잔을 뽑아와 내손에 쥐어주며 친절하게 대해주어 고맙다고 말한다.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경제가 어려워 서민들은 물가 때문에 또 일자리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데도 투자를 한다고 고역을 투자했다 사기당한 청년 아저씨, 하루에도 여러명 찾아오는 당근마켓에서 사기당했다는 젊은남·여,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숨이넘어갈 듯 아들 손잡고 방문한 나이든 할아버지, 옆에서 지켜보기 너무 안타깝고 속상할 때가 많다.

이제 제발 신중하게 여러번 생각해보고 너무 욕심부리지도 말고 더 이상 피해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근 우리 사회가 각종범죄로부터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인심은 더 각박해진 것 같다. 그만큼 경찰관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더 큰 어려움도 수없이 헤쳐온 우리 광주경찰관들은 이런 일 짐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믿는다.

앞으로 경찰관들의 많은 노력으로 또 그렇게 흘린 땀방울의 결실로 경찰서를 찾는 방문객들이 확 줄어들기를 간곡히 기대해본다.

社說

광주 자원회수시설 공모 거듭 실패 안돼

재공모에 입지 후보지 6곳 신청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광주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공모를 재추진한 결과, 6곳이 신청했다. 기피·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수차례 무산된 바 있는 자원회수시설은 2030년까지 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입지 선정을 서둘러야 한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5개 자치구 등과 공동으로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 결과 광산구 4곳, 서구·남구 각 1곳 등 총 6곳이 신청했다. 동구와 북구는 미신청했다. 입지 후보지 신청을 받은 자치구는 오는 24일까지 후보지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 뒤 같은 달 25일 광주시에 최종 신청할 계획이다. 각 자치구는 타당성 검증기간 동안 입지 후보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됐는지 여부, 지장물,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집중 검토한다. 자치구 타당성 검토를 통해 후보지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면 광주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2차 타당성 평가를 진행한 뒤 최종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2030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은 매립하지 않고 소각해야 하는 ‘폐기물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두차례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인해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했다. 이후 광주시는 부지 선정 방식을 ‘5개 자치구 선 신청, 광주시 후 결정’으로 바꾸고 입지 공모를 재추진했다. 광주시는 2030년 1월 1일부터 하루 650톤을 처리할 자원회수시설 조성이 시급하다. 매립금지까지 5~6년 남은 셈인데 가장 큰 걸림돌은 후보지내 주민 수용성이다.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는 자치구와 마을에는 편익 시설 설치비 600억원 이상, 특별지원금 500억원 등 1100억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에도 이미 두차례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그만큼 민비현상이 발목을 잡고 있다. 광주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은 각종 인센티브만으로는 주민 설득에 한계가 있다는 반증이다. 결국 폐기물을 단순 소각만 하던 소각장이 아닌 친환경·지역명소를 표방하는 자원회수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다.

허투루 넘겨선 안될 광주 학업중단학생

제대로 된 교육으로 희망 줘야

광주지역 학업중단학생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응과 입시위주의 교육과정 등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매년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난다는 것은 수렁에 빠진 우리 교육의 실상이라는 점에서 허투루 넘겨서는 안된다. 많은 사람이 교육의 붕괴를 우려하는 지금, 위기학생을 돌보기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을 촉구한다.

1일 교육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모임’이 한국교육개발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초·중·고 학업중단학생은 지난 2022년 1105명에서 2023년 1409명, 2024년 1623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통계 기준 학교급별 학업중단학생은 초등 377명, 중등 239명, 고등 1007명이었다. 학업중단의 이유는 초·중학교의 경우 대안교육 기관이나 해외출국, 장기결석 등의 순이었고, 고등학생은 부적응과 질병, 해외출국 등이 많았다. 고등학생 가운데 원인을 알 수 없는 학생도 50%가 넘는 578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

다. 성적 위주의 교육부터 숨막히는 경쟁까지 비정상적인 우리의 교육 현실이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보다 좌절감을 안겨왔다는 지적은 새삼스럽지 않다. 특히 학업을 중단한 고교생 가운데 50%가 넘는 학생들이 이유도 없이 학교를 그만 둔다는 것은 ‘광주 교육’의 위기를 보여주는 반증이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도 교사나 친구 등 학교에서의 정서적 유대감이 사라져 나오는 부작용이다. 관심과 배려가 사라진 학교, 줄세우기에만 몰입하는 교육은 창의성이 생명인 4차 산업혁명의 시대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아이들이 불행한 지역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 교육당국과 자치단체는 지역의 위기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학교에서의 정서적 유대감을 높여 희망도 줘야 한다. 가정과 지역사회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공부라는 한가지 기준으로 아이들을 경쟁의 한가운데 내몰아서는 아이들이 행복할 수 없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필리핀 민간항공청이 제공한 사진에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제18호 태풍 고틀라톤이 필리핀 북부 바타네스주 바스코 공항을 강타해 비행기 한 대가 파손돼 있다. AP/뉴시스

서석대

“올해 야구 없었으면 우짜고 살았을까-.”

2024 프로야구 KBO리그가 144경기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올 시즌 내내 선두를 질주한 KIA 타이거즈가 일찌감치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광주 팬들을 열광케 했다. 올해 87승 55패 2무로 2등과 무려 9경기차로 1위를 달성했다. 공수에서 고른 활약을 보여준 KIA 선수단의 활약에 큰 박수를 보낸다.

김도영 선수에겐 최고의 한해였다. 아쉽게도 ‘40-40 달성’은 무산됐지만 그만큼 팬들에게도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도영아, 니 땀시 살아야 KIA 땀시 살아야” 라는 유행어를 만들었고, 여성 팬들을 야구장으로 불러들인 장본인이었다. 올 시즌 김도영은 기록제조기였다. KBO 리그 역대 3번째로 ‘3할-30홈런-30도루-100타점-100득점’ 기록을 만들어냈다. 최초 월간 ‘10(홈런)-10(도루)’, 네추럴 사이클링 히트, 아시아 최다득점 타이 기록 등을 이뤄냈다.

KIA의 성적에 광주시민들의 일상이 달라졌다. 일주일 중 야구를 하는 날과 안하는 날, 홈경기 열리는 날과 안 열리는 날로 구분될 정도다. 야구를 직관하기 위해 기아 홈페이지 에메 창에서 좌석을 구매하려는 ‘광클’(빠르게 클릭하다)은 일상이 됐다. 광주시민들의 야구 사랑 덕에 KIA



가 올 시즌 매진만 28번째다. 종전 최다 매진(21회) 기록을 15년 만에 갈아치웠다. 9월까지 이어진 폭염에도 광주 팬들의 야구사랑은 지치지 않았다. 화려한 성적에 유니폼 판매량에서도 기록적인 수치를 보였다. 약 7만벌 정도의 유니폼이 판매돼 100억원 가량의 수익을 냈다고 한다.

KIA 팬의 응원도 단연 돋보였다. 홈경기가 아닌 원정에서도 홈팀을 압도하는 함성소리는 단연 KIA 팬의 저력이었다. 응원단의 ‘빠기빠기’ 춤은 장안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KIA의 좋은 성적, 새로운 슈퍼스타 김도영의 등장, 구단과 선수들의 성숙한 팬 서비스 등은 폭염에 지친 광주시민들에게 최고의 한해를 선사했다.

이젠 우승이다. KIA는 오는 2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플레이오프 승자와 한국시리즈 일정을 시작한다. 7전 4선승제로 진행되는 한국시리즈에서 KIA는 통산 12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KIA 선수단은 이미 우승 담금질에 나서고 있다. 우승을 기원하는 KIA팬들도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7년 만의 한국시리즈 정상 탈환에 도전하는 KIA를 응원하기 위해, 광주는 가을에도 야구로 뜨거울 예정이다. 김성수 논설위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